

버블의 교훈 “정부가 나서도 꺼질 거품은 꺼진다”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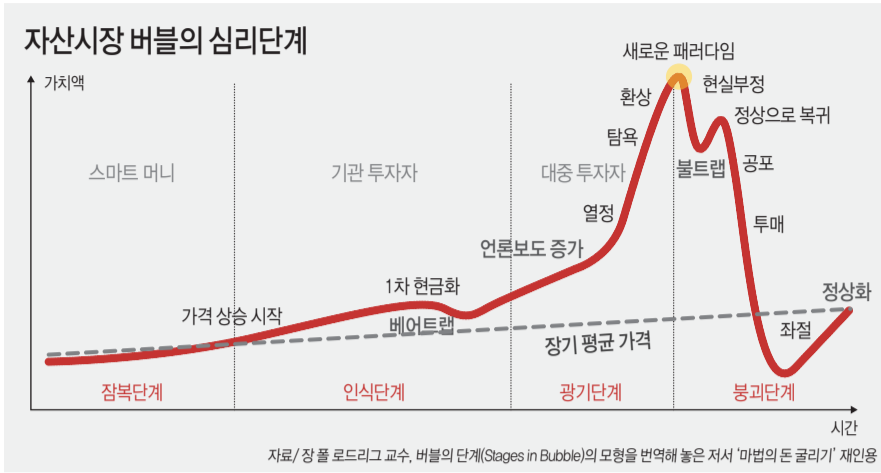
특하면 정부 탓

주가 하락보다 신용유자 잔고 문제 가격버블, 정책 실패 아닌 투자자 탓

자산 가격 버블(거품)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면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하지만 거품이 생긴 자산은 투기라는 이기주의가 만든 버블 일뿐더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자산 가격 버블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이고, 그 흐름 속에서 개개인의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유자 잔고는 총 9조2669억원이다. 2년 전(6조9468억원)에 비하면 33.4%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 증시의 문제는 주가 하락보



다 쌓여있는 신용유자 잔고다. 신용유자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뜻한다. 투자자는 해당 자금을 통해 주식을 사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해 신용유자 잔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는 투자자 동의없이 주식을 내다 파는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는 당일 하한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신용유자는 한 달만 빌려도 10% 가까운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때 돈을 빌린다. 이러한 자금은 주가가 하락해 버블을 만들기도 한다.

실제 신용유자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은 코스닥 역시 연 중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다. 또 신용유자잔고와 코스피지수의 추이만 봐도 정비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상승했던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실패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선에서만 시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1989년 4월, 3저 호황으로 국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그러자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2조 7000억원의 돈을 찍어내 주가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그 효과는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정책이 가격을 움직일 수 없음을 증명한 사례다.

또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전략인데다 한국 시장에서만 공매도가 금지되면 국내 증시 수급 주체인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주식시장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난한다. 부동산 불패 시장을 만든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닌 투자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본인의 투자 수완, 하락하면 정부 탓을 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담합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언제 급락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폴 로드리그 교수의 ‘버블의 단계’ 모형에 따르면 가격 거품 붕괴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자산은 붕괴 전 단계에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박소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기단계에서는 신용 거래가 증가하며 거품이 커진다”면서 “이 때 가격 상승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무시되며 어떤 지점부터는 새로운 펀더멘털로 가격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거품은 팽창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꺼진다”고 경고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코발트 공급 차질... 삼성SDI·LG화학 수급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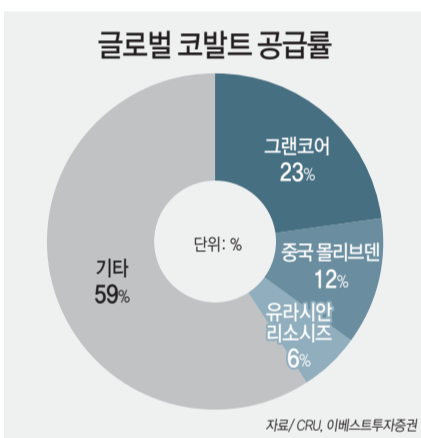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 성장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듯

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업체가 원재료 수급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세계 최대 코발트 채굴 업체 글렌코어(Glencore)가 소유한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카모토(Kamoto) 구리·코발트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이 발견되면서 2019년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전기자동차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공급은 한정돼 있다. 다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보여 LG화학과 삼성SDI 등의 주가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게 시장의 분석이다.

12일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 글렌코어(Glencore)는 카모토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 해당 광산에서 생산된 코발트 판매를 내년 2분기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글렌코어 주가는 추가 하락한 반면, 중국계 광산기업인 뤼양몰리



브덴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당장 공급차질이 우려되진 않아보인다. 가격이 이를 말해 준다.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코발트 가격(3M 선도, 달러/톤)은 5만1000달러다. 연초 대비 -32.23% 줄었지만 최근 1주일 새 -11.69%, 한달 새 -17.41%로 하락폭이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시장과 업계는 글렌코어발 공급우위 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코발트 가격 하락을 이끈 원인이 주요 코발트 채굴 광산(연간 2만 2000톤 생산 규모의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C) 카탕가 광산 생산 체계)의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LME위크에서 다수의 기관은 내년 코발트의 공급우위 규모를 2만300톤 이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

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우위 폭은 약 5000톤 가량 축소될 것이라 관측이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은 “글렌코어가 2500만달러를 투입해 내년 6월경 이온 교환 방식을 통해 기존 생산된 코발트에서 고농도 우라늄을 제거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농도 우라늄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당국의 재심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조기 판매는 다소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카모토 광산은 글렌코어의 2대 광산 가운데 하나로 올해와 내년 생산 목표는 각각 1만 1000톤, 3만 4000톤이었다. 회사는 이번 사태로 1472만톤의 판매차질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생산(6500톤)된 물량을 목표치와 비교할 때 공급차질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 전망이 많다.

전기차 확대로 코발트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45%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0년, 영국·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0년까지 5조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책을 내놨고, 일본은 최대 100만엔(약 96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한국 정부도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LG화학과 삼성SDI 등의 주가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원은 “코발트 매장량의 49%가 콩고에 집중돼 있다. 콩고 내전, 헤지펀드 투기 수요 급등으로 채굴 광산의 생산량도 증가했다”면서 “산지 채굴 광석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1~2분기가 소요되는 통상적 지체 시간을 감안하면 가격 하락은 2019년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SDI,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전기전자 업종 10개사의 올 영업이익은 58% 증가한 6조 4000억원, 내년에는 20% 증가한 7조 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SDI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1조 1678억원(신한금융)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예상치도 각각 2조 8803억원(하이투자), 3조 2270억원이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코발트 장기 공급 계약과 공급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코발트 비중을 최소화하는 배터리 개발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현재 10%인 저코발트 배터리 판매 비중을 내년까지 40%로 올리고, 2020년에는 60%까지 확대기로 했다. LG화학은 앞으로 코발트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코발트리스’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니켈과 망간 비율을 높이고 코발트 비율은 낮춘 NCM811 배터리 양산에 들어갔다.

김문호 기자 kmh@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고용상황 엄중하게 생각 민생경제 추가대책 고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통계의 향방이 앞으로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것 같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가 마련된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4일 통계청은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취업자수가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 5000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10월 취업자 증가 규모에 쏠려 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기간에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많이 구상해볼까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추가적으로 할 것을 잘 고민해보고 정책 구상을 잘 다듬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일 것이라는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싶다”며 “여력을 동원해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KB청춘스타’ 3기 성료

KB증권은 ‘제3기 KB청춘스타’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KB청춘스타’는 KB증권과 함께 디지털 금융을 체험하고 응원하며 실현하는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제3기 KB청춘스타’는 약 3개월 동안 KB증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고,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만든 신선한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등 열정 넘치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단편영화, 1

인 방송, 리얼예능, 캠퍼스어택 등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기발한 포맷들로 KB증권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알리는데 일조했다.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해넘이잔치(해단식)에서는 활동 내역 리뷰 및 우수 콘텐츠를 공유하며 지난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김재봉 마블 랜드 트라이브(M-able Land Tribe)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증권 서비스에 좀더 친숙해지고,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



지난 9일 KB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개최된 ‘제3기 KB청춘스타’ 해단식 행사에서 김재봉 마블 랜드 트라이브(M-able Land Tribe)장(앞줄 왼쪽 네번째) 및 KB증권 임직원들이 대학생 서포터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도 KB증권은 청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

고, 청년들을 위한 금융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연합뉴스